

## 목장교재 목자용 목자지침서

### <보혜사 성령>

12/9(주일) 설교 내용

요한복음 16:5-15

1.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곧 자신들을 떠날 것을 알고 근심하고 있던 제자들 (6 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근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떠남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7 절에 근거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을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근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것을 당부하며 7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번 질문은,  
이렇게 가볍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히, 1번 질문은 비교적 대답하기에 수월한 질문이기에,  
평소에 이야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에게 답을 권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세가지 영역에 대해 책망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고, 또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열매가 열리게 되는지 사도행전 1:8 에 근거해서 나누어 봅시다.

8절에 보면, 성령이 오게 되었을 때 책망하게 될 세가지를 설명합니다.

#### 1. 죄에 대하여

죄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어”(9절)

#### 2. 의에 대하여

여기서 말하는 의는, 세상적인 의, 즉 인간적인 자랑들을 말합니다.

예수보다 더 가치있게 여기는 세상적 가치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 3. 심판에 대한 깨달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11절)

세상 임금은 마귀를 말합니다. 악한 영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3. 우리는 '성령충만'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혹시 나는 이 용어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충만'에 대해 새롭게 정리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성령충만'을 말하면,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와 같이 신비로운 체험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것만이 '성령 충만'에 대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성령 충만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또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주십시오.